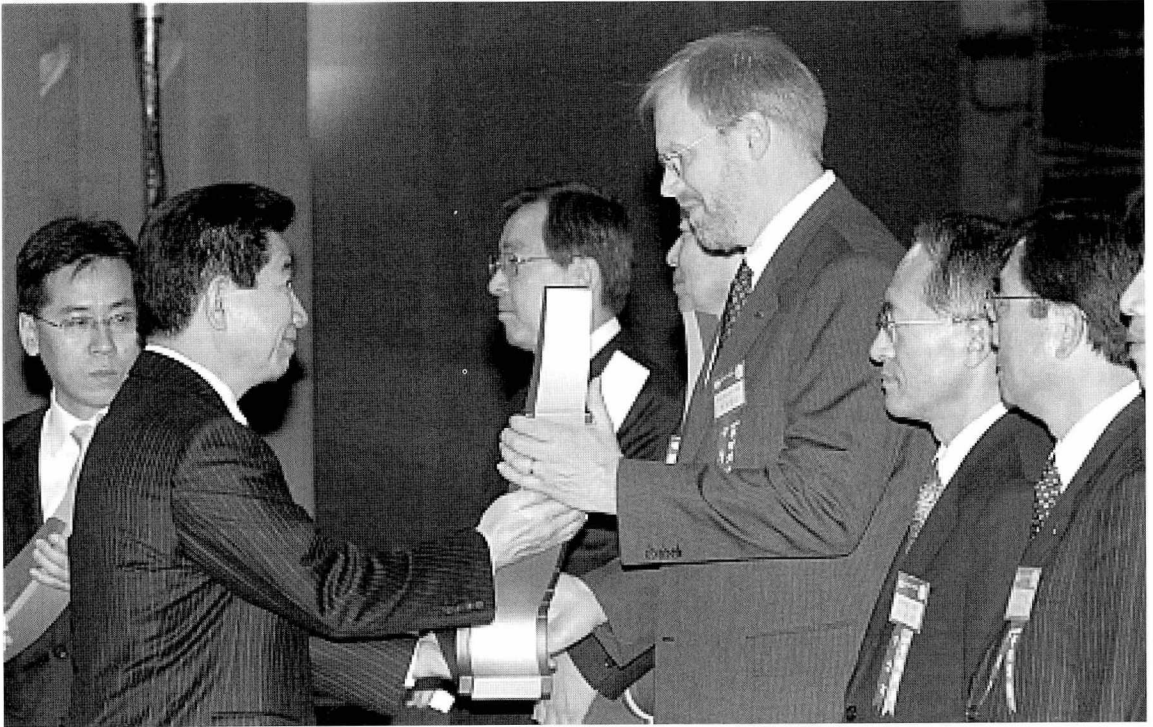


## 한진해운 등 21개 국적외항선사 수출의 탑을 수상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무역대국 기여한 공로



한진해운 등 21개 국적외항선사들은 2006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해운업체가 무역의 날에 수출탑을 수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물품수출에만 적용되던 수출의 범위에 해운서비스용역(운수업)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무역의 날 포상을 받게 됐다. 해운업체는 우리나라가 수출 3천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12위 무역대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해운업체의 「무역의 날」포상 참여는 2005년도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0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의 범위에 운수업을 신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 2)하고, 해운업 수출입 확인업무의 권한을 한국선주협회에 위탁(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6조)한다는 내용을 법령화했다.

해운기업의 서비스 수출실적은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의해 입증된다. 해운기업은 공인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의 공증된 해운기업 수출확인신청서와 거래은행의 날인된 외화총액확인서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선주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수출확인서를 발급하고 무역의 날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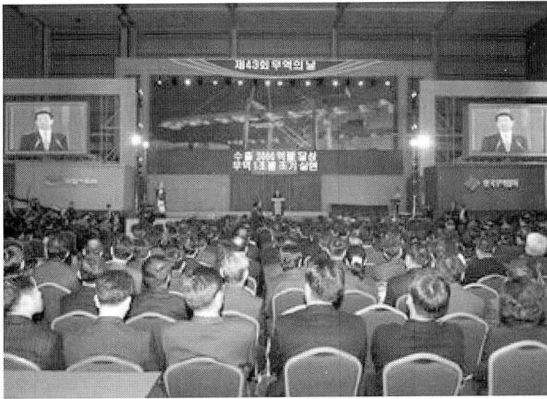
해운기업의 1년간 수출실적은 신청하는 해의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의 외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해운소득으로, 국내수출입화물 운임수입, 삼국간화물 운임수입, 외국인에 대한 대선수입, 터미널 운영수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증대 및 무역증대에 기여한 유공자 760명에 대한 포상 및 1,312개 업체에 대

한 수출의 탑 시상이 거행됐다. 해운분야에서는 한진해운이 50억불, 현대상선은 30억불, STX Pan Ocean 20억불, 대한해운 6억불, 유코카캐리어스 5억불, SK해운과 흥아해운이 3억불, 고려해운 2억불, 대보해운 1억불의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7천만불(1억불 미만)은 남성해운, 선우상선, 2천만불 거양해운, 범주해운, 삼호해운, 인터해운, 천경해운, 1천만불 거영해운, 쉬핑랜드, 5백만불 새한가스선, 타임머천마린, 3백만불 대호상선 등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1,312개 업체의 대표, 8개 기업에게 수여하였고 대한해운 이진방 사장이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수상하였다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수상업체]

수출탑	선 사 명
50억불	한진해운(51억불)
30억불	현대상선(36억불)
20억불	STX Pan Ocean(21억불)
6억불	대한해운(6.6억불)
5억불	유코카캐리어스(5.2억불)
3억불	SK해운(3.6억불), 흥아해운(3억불)
2억불	고려해운(2.8억불)
1억불	대보해운(1.3억불)
7천만불	남성해운(9.2천만불), 선우상선(7.9천만불)
2천만불	거양해운(2.9천만불), 범주해운(2.3천만불), 상호해운(2.7천만불), 인터해운(2.3천만불), 천경해운(2.7천만불)
1천만불	거영해운(1.7천만불), 쉬핑랜드(1천만불)
5백만불	새한가스선(6.6백만불), 타임머천마린(5백만불)
3백만불	대호상선(3.3백만불)

## 선협 회장단, 내년도 중점추진 사업방향 등 협의 2007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1월23일 개최기로

한국선주협회는 12월1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내년도 중점추진 사업방향 등을 협의하는 한편, 2007년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1월23일 개최기로 했다.

장두찬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항만노무체제 개편 추진현황, 제16차 ASF 개최 준비경과, ICS 재가입 관련 내부 검토사항,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활성화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내년도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2007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1월23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복이후 현재까지 한국해운의 발자취를 정리한 '한국해운 60년사'의 편찬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007년 1월17일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는 각국 외항선주협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 국제연합회로서 지난 1921년에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2006년 10월말 현재 33개국 선주협회가 가입해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979년 가입하여 1998년 탈퇴하기까지 19년간 회원을 유지했으나, 지난 1997년말 IMF 금융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총회의결에 따라 탈퇴했다.

ICS의 주요활동을 보면, IMO, EU 등 국제기구에서 외항해운산업을 대표하여 선박운항 관련 기술문제 및 해운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각종 의견제진과 함께 건전한 해운산업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국제기준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